

플라톤의 『국가』 : 영혼의 윤리학

제 3장 정의란 무엇인가

◆ 1교시 정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배경

▲ 『국가』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 정의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그 제대로 된 통치체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가』가 되겠는데요. 제가 애초에 강의 계획 개요에 쓰기를...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따르면 정치 철학적인 측면이 강조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수업을 진행할 방식은 이 정치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인식론적인 이야기들이 『국가』편에 많이 나오지만, 그것의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는, 국가도 제대로 된 어떤 정치체제를 갖춰가지고 잘 다스려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덧붙여서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개인도 제대로 된 어떤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올바른 정치체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 같은 경우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국가』편 이야기를 해보면... 그 『국가』편은 열권으로 되어있는데요. 1권은 말하자면 서론 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1권하고 2권부터 10권까지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1권이 말하자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문제제기라는 것은, 두 가지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의가 도대체 뭐냐, 이 질문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정의가 과연 이득이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보자면 정의가 과연 이득이 되는가 하는 것이 『국가』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어떤 맥락하고 그 당시의 사회적인 맥락하고 비교해서 볼 때 말이죠. 칼리클레스나, 트라시마코스 같은 당시의 일부의 소피스트들, 전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나 그렇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적어도 일군의 소피스트들, 그리고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도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대해서, 사실은 정의가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국가』전체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제기 같은 것이 1권에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2권부터 4권까지가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테피니션(definition)을 내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먼저 정의로운 국가를, 국가에서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 있어서 정의가 무엇인지 요런 이야기까지를 2권부터 4권까지 하게 되요. 5권부터 7권까지는 이제 그 2권부터 4권에서 정의로운 국가가 어떤 것이라고 수립을 한단 말이죠. 논의를 통해서 정의로운 국가를 수립을 하는데,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그

런 질문이 제기가 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그 유명한,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5권부터 7권까지 진행이 되어요. 8권하고 9권에서는 하는 얘기는 정의로운 국가는 어떤 것인데, 그렇다면 부정의한 국가는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부정의한 국가에 해당하는 부정의한 인간 유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정도 등장을 하게 되죠. 명예정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정의로운, 그러니까 부정의한 것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그런 사람, 명예정체적 인간이 두 번째로 괜찮은 사람, 부정의한 사람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 그 다음에 과두정체적인 인간, 과두정체적인 국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민주정체적인 국가, 민주정체적인 인간, 그 다음에 참주정체적인 인간, 참주정체적인 국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것은 8권, 9권이구요. 10권에 가서는 그... 어떻게 보자면 8권, 9권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뭐 영혼불멸 같은 이야기도 나오구요. 사후세계 같은 이야기도 나와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의롭게 살면 죽어서도 좋고 부정의하게 살면 죽어서 고통스러울 거다, 그런 이야기가 10권에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 『국가』의 정치적 배경 - 민주파와 참주파의 대립

그 1권 시작하는 곳을 보면,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시작을 제가 읽어보면... “어저께 나는 아리스톤의 아들 글라우콘과 함께 피레우스로 내려갔었네.” 이게 『국가』 전체의 시작입니다. 피레우스는 항구예요. 이 피레우스라는 장소가 그 과두정, 30인 과두정하고 민주정이 전투를 벌일 때... 404년에 참주정이 성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민주파를 숙청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때 당시 민주파에서 참주파와 싸우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그 싸움을 격렬하게 했던 민주파의 요충지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피레우스가.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바로 그 때 죽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등장인물들이 1권의 경우에는 케팔로스하고 글라우콘, 폴레마르코스하고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구요. 2권부터 방금 얘기한 글라우콘이 나오는데요. 1권의 내용을 보면, 피레우스라는 항구에 왜 갔냐 하면 축제가 있어서, 그 축제 구경을 하러 소크라테스가 글라우콘하고 갔단 말이에요. 글라우콘은 바로 플라톤의 형입니다. 플라톤의 형인데 같이 가서 축제 구경하고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테이만토스하고 폴레마르코스... 아테이만토스는 플라톤의 또 다른 형이고요... 폴레마르코스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가지 말고 자기 집에서 머물렀다 가라고 소크라테스를 붙잡아서 폴레마르코스의 집에 가게 되요. 폴레마르코스의 집에 가게 되면, 폴레마르코스의 아버지 케팔로스, 나이 많은 케팔로스가 있는데, 케팔로스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폴레마르코스가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트라시마코스가 등장을 해서 한참 논의를 하는 것이 1권입니다. 트라시마코스까지의 이야기가 끝나는 데가 1권인데요. 폴레마르코스가 바로 404년, 그 때 참주정하고 싸우다가 죽습니다. 민주파 입장에서 죽게 되죠. 여기 또 등장했었던 등장인물들 중에서 니케아스의 니케라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건 307c에 나오는 이야기, 폴레마르코스가 붙잡는 장면인데요. 이 니케라토스라는 사람도 주해에도 나와 있듯이 역시 404년에 민주파로서 죽게 되요. 그러니까 시작 장면에서부터 벌써 민주파와 참주파 사이의 전쟁, 그 기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0권까지 쭉 보면... 말하자면 1권에서 트라시마코스가 과격하게 등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를 보면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국가』편을 읽는 독자들은 당

시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폴레마르코스가 민주파로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지금 여기 그 등장했던 사람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독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것도 『국가』 1권을 읽으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 정의 개념에 대한 논의의 시작

처음에 정의가 그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뭐냐 하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팔로스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케팔로스라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던지기를, 이제 나이도 많은데... 말하자면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당신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지내기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무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해서 케팔로스가 자기는 건디기가 쉽다, 나이 들었지만 뭐 좋다, 이거예요. 왜 좋냐 하면, 젊었을 때는 예컨대 성욕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지배당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수월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를 하니깐 소크라테스가 당신, 뭐 다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돈이 많아서, 나이는 들었지만 불평도 안하고 쉽게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지도 모른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해요. 그 때 케팔로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돈이 많은 것이 나쁠 것은 없는데, 종긴 좋은데, 사람이 못난 사람이면 돈이 많다고 해서 더 좋을 게 없고, 훌륭한 사람의 경우에는, 훌륭한 사람도 돈이 없다고 한다면 힘들 수 있겠지만, 훌륭한 사람이어야만 돈이 많은 것이 나름대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못났으면 돈 많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돈 많은 것이 도대체 뭘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깐 케팔로스가... 그 케팔로스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어서 세습적으로 돈 많아서, 잘 먹어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젊었을 때 같으면 이리저리 성적인 거, 성욕에 이끌려서 다니는 그런 것을 하려면 돈이 많은 게 도움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돈 많은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기 때문에 부정의한 일을 저지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빌린 물건 있으면 때먹을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신께 제사도 잘 지낼 수 있고... 이런 일을 잘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 한단 말이죠. 케팔로스가 거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일단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필요한데, 바로 그 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정의한 행동들을 안 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질문을 받고서 그렇게 케팔로스가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렇다면 정의가 그렇게 거짓말 하지 않고, 빌린 물건이 있으면 제대로 갚고, 이게 바로 정의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내 생각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 케팔로스의 정의 개념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반박

이 얘기를 먼저 하고서 케팔로스가 이야기하는 것, 케팔로스라는 등장인물이 『국가』 편에서 갖는 의의랄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 안하는 것,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빌린 물건이 있으면 돌려주는 것, 이것이 만약에 정의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명백한 반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드는 예는 뭐냐 하면, 친구가 그 무기를 맡겨 놓았던 말이죠. 무기를 맡겨 놓았는데 애가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무기를 돌려달라고 그럴 때... 그 무기는 누구 것이냐 하면, 친구 것이죠, 친구 것인데...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이나.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애인이 변심했던 말이에요. 쫓아와가지고, 칼 들고 쫓아와가지고 변심한 애인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 저기에 들어가서 숨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정의로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맥락에서는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든 맥락을 벗어나서 진실을 다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맥락을 벗어나서 그냥, 원래 물건 임자한테 맡았던 물건을 돌려주는 것, 무기 같은 것을 돌려주는 것... 그 예컨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있죠. 무기 들고 들어와서 사람들 죽이고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내가 사람들 죽일 건데 무기 내놔 할 때 무기를 돌려주는 것이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맥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정의라는 것이 뭐냐, 바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갚을 것을 갚는 것, 요 두 가지가 케팔로스가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소크라테스가 이끌어낸 케팔로스의 정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정의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진실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갚을 것을 돌려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의로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우는. 이런 경우, 정의롭기는 하지만 적어도 어떤 맥락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 안하는 것이 좋은 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둘 중에서 소크라테스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 가치의 충돌에 따른 선택의 문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 것은 맞죠. 정의로운 일인 것은 맞지만 적어도 어떤 맥락에서는 정의로운 일을 하면 안 되는 맥락... 정의가 모든 가치 중에서 최상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들이 상충하는 경우에, 상충하는 가치들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가치들이 상충할 때에는 그 맥락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런 종류의 가치를 택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저런 가치를 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1번이 되는 거죠. 그 행동 자체는 정의로운 행동이지만 이 맥락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될 수가 있다. 예컨대 지금 이 경우는 뭐예요. 뭐가 상충하는 건가요. 정의로운 것하

고 상충되는 것이 뭐가 될까요? 다른 사람의 살인을 막는 일, 그것도 정의로운 것 안에 해당되나요? 뭐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보면 상충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에우티프론』이라고 하는 대화편이에요. 『에우티프론』이라는 대화편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에우티프론의 아버지가 그 노예를 이제 죽게 내버려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불경스러운 경건함하고 정의로움이 피상적으로 볼 때에 상충하는 경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연 그 때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이... 만약에 아버지 고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한다면 말이죠...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이 정의롭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맥락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건지, 만약에 정말로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이 고소할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고소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이 정의로운 일도 아니다, 이게 이쪽 방식의 이야기예요. 여러 종류의 가치들이 있고, 서로 경쟁적인 가치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쟁적인 가치들은 서로 상충할 수가 있고, 그 상충의 맥락에서는 어떤 종류의 가치를 택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가치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가 특정한 맥락에서 이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궁극적인 것이에요. 만일에 그것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로운 일도 아니고, 경건한 일도 아니고, 절제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2번 입장입니다.

▲ 정의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 - 다른 가치와 상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정의롭다, 이런 일이 정의롭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는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해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전제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궁극적으로 이러저러한 가치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 가치들은 상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소크라테스가 여기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은 어떤 종류의 가치들이 상충할 수 있고,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의가 더 아레테다...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말하자면 다 아레테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니, 경건이니, 절제니, 이런 것들이죠... 여러 종류의 아레테가 있는데 그것들이 상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어떤 탁월함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 이렇게도 드러날 수 있고, 저렇게도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탁월한 것들이 상충하고 있으면, 이쪽으로 탁월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탁월하기에 다른 쪽으로는 열등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탁월함의 개념하고 잘 안 맞고요. 꼭 그리스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도 어떤 탁월한 사람인데 부정의한 행동을 하는 탁월한 사람, 이거 좀 생각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일은 바로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케팔로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보이는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 갚을 것을 갚는 것, 이것은 실제로는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케팔로스가 이런저런 반론, 대답을 하지 않아요. 케팔로스는 제사 드리다가 와서, 다시 제사 드리러, 더 얘기를 안 하고 떠나버립니다.

케팔로스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어서 신에게 어떤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 같은 것을 중요시 여기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논변, 소크라테스와 논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 2교시 정의에 대한 논쟁들

▲ 폴레마르코스의 정의 - 각자의 몫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폴레마르코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린 거 아닌가, 지금 이런 반례가 있으니까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폴레마르코스가 아들로써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사실 그 얘기가 맞다 그러면서, 시모이데스도 얘기하듯이 정의라는 것은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주는 것, 그것이 정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요. 사실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생각은, 그 이후에 정의가 뭔지에 대한, 말하자면 정의에 대한 모토 비슷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오늘날에도 보면 정의가 뭐냐 하면,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주는 게 정의다... 이러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몫이 뭔지를 얘기하면서 정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받아서 폴레마르코스는 정의는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해요. 그럼 그게 뭐냐? 친구에게는 도움과 이득을 주고, 적에게는 해를 입히는 것이 정의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러 가지 논변을 통해서 사실 폴레마르코스의 그 생각이 사실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자세히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서 우선 넘어가고요.

▲ 소크라테스의 반론 - 행위중심적인 정의 규정의 문제점

지금 이제 그 케팔로스와 폴레마르코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대화 부분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를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정의가 무엇이다, 라는 규정을 함에 있어서 행위 중심적인 규정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행위중심적인 규정이란 건 뭐냐 하면, 아까 같은 경우처럼 그 진실을 이야기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갚을 것은, 친구한테 물건 뭐 빌리게 있으면 돌려주는 것...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일반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폴레마르코스처럼 친구한테 이득을 주는 것, 적에게는 해를 입히는 것, 뭐 이런 방식으로 어떠어떠하게 하는 것이 정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주장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행위중심적인 정의 규정이 굉장히 좀 구체적인 것이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강의 맥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맥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이제 그 어떤 경우에는 진실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런 맥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진실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맥락에서는 바로 그것이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정의에 대한 규정으로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규정은 완벽한 규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례가 분명히 있으니까. 아니면 각자에게 자기에게 몫을 주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행위규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경우에는 그 데피니션, 그 규정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정의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별로 해주는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중심적인 규정일 경우에, 그것이 피상적일 경우에는, 도대체 내가 정의로

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해주는 경우가 없거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반례가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되다보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행위를 가지고서,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내리는 그 규정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소크라테스가 가졌을 수 있어요.

▲ 소크라테스의 정의 - 행위가 아닌 행위자의 영혼에 따른 것

그것은 이 구절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파악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정의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영혼의 각 부분이 조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 사람들이 정의가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행동이 정의로운가 하는 것을 가지고 먼저 찾기가 쉬운데, 그렇게 찾아가지고는 정의가 뭔지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결국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만들어낸, 산출한 행위자, 행위자가 도대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봐야지만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건지, 아닌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동일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행위 자체로는 그러니까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정의로운 어떤 상태를 가지고서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 우연히, 속에 시켜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의로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진정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행위자의 중심을 봐야만 그 사람의 행위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를 규정내리는 것에 있어서도 단순히 행위를 가지고서 정의 규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지만, 그 어떤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만,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국가』 4권에서, 정의에 대한 규정을 소크라테스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게 될 테고요.

▲ 트라시마코스의 정의 - 강자의 이득

어쨌든 폴레마르코스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논박을 벌이고 나서,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논의에 끼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가 논의에 끼어들면서 처음에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엉터리 소리들만 지금 하고 있냐, 이거예요. 계속 폴레마르코스하고 소크라테스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트라시마코스가 막 끼어들고 싶어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제 말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다가 폴레마르코스가 완전히 논박이 되고 나서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드디어 이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트라시마코스가 끼어든단 말이에요. 끼어들면서 그 얘기하는 맥락이 되게 재미있는데, 그게 이제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는 336b입니다. 77쪽예요.

WWW

제가 이제 얘기하는 336에 b다, 뭐 이런 것은 스테파노스 숫자라고 그래요. 이제 플라톤의 저작들은 보통 우리가 인용을 할 때 책에 있는 페이지수로 인용을 하지 않고요. 그 스테파노스 번호를 가지고서 인용을 하는데요. 이 스테파노스 번호라는 것은 플라톤 전집, 그 판본에서의 페이지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번역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인용을 하다보면, 뭐 77쪽이다 라고 인용을 하게 되면, 판본이 뭐 서광사에서 나온 박종현 선생 번역의 77쪽,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번역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그 스테파노스 판본의 번호를 따라서 보통 인용을 해요. 그래서 박종현 선생님 책에도 보면 옆에 뭐, 336 a, b, c, d...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주로 인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숫자를 가지고서 애길 할 거구요.

어쨌든 이제 336b에 보면 트라시마코스가 끼어드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나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중단한 데다 내가 이런 말을 한터라, 그는 더 이상 잠자코 있지 못하고, 마치 야수처럼, 혼신의 힘을 가다듬어 찢어받기라도 할 듯이 우리에게 덤벼 오더군. 그래서 나도 폴레마르코스도 무서운 나머지 겁에 질려 버렸네.” 뭐 이렇게 야수처럼 막 뛰어 들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렇게 서로 논박하면서 헛소리하지 말고, 정의가 진짜 뭔지 얘기하려면 뭐 마땅한 것, 유익한 것, 이득 되는 것, 이로운 것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트라시마코스가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나는 정의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런 얘기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가 하는 얘기가 강자의 이득이 바로 정의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것이 이제 트라시마코스의 유명한 주장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트라시마코스가 방금 얘기하기를 이득이 되는 것, 유익한 것, 마땅한 것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정의가 뭔지 이야기해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나는 그 얘기할 수 없소, 난 모르니까, 그럼 네가 한번 얘기 해봐, 그러니까 강자의 이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트라시마코스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득이 된다,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트라시마코스 자신도 이득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트라시마코스가 생각하기에 그 강자의 이득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강자의’ 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생각이 그럼 왜 크냐. 여기에서는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진짜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하는 얘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트라시마코스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이 좀 잘 일치하지 않는 것, 일관성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중간 중간에 자꾸 바꾸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그 혼란스러워서 여기선 이 소리하고 저기선 저 소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트라시마코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중심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잘 표현을 못해서 여기선 이렇게 표현했다가 저기선 이렇게 표현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라시마코스가 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관된 어떤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 트라시마코스의 정의 - 이득이 되지 않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 결론부터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트라시마코스가 가지고 있는 중심생각

은, 정의라는 것은 남한테만 이득이 되는 것이지 자기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트라시마코스가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득이 되는 것, 유익한 것, 뭐 이딴 소리 하지 말라 라는 얘기가, 정의라는 것이 원래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트라시마코스가 생각 하기에 정의라는 것은 절대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누구한테 이득이 되고... 무슨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말이에요. 폴레마르코스랑 이야기하면서 특히... 뭐 정의가 친구한테 이득이 되는 것, 적에게는 해가 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요. 이득, 그딴 소리 하지마라, 정의는 원래 이득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계속 참지 못하고 막 있다가, 드디어 얘기 좀 끝난 것 같으니까 딱 튀어나가서 바로 처음에 쏘아 부은 말이, 도대체 무슨 헛소리냐, 뭐 이득 되는 것, 이딴 소리 하는데,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득 얘기 하지 말고 이야기해야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강자의 이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강자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측면에서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그 보통 사람들이라는 건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이 아니죠. 말하자면 이제 그 통치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치인들, 대통령들, 뭐 이런 사람들이나 이제 강자이고...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득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절대로 이득 되는 게 아니라 손해만 되는 거다,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뭐 이걸 제 해석이기 때문에... 그 트라시마코스가 대충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떤 식으로 논박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음 처음에 일단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는 강자의 이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깐, 처음에는 소크라테스가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지 좀 설명을 해봐라, 그럼, 강자의 이득이라 그랬는데, 일단 뭐 처음에는 이득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 그러고서 너도 좀 하긴 했고, 내가 일단 무슨 소린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가 거기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나 하면, 너도 잘 알다시피 참주정에는 참주정에 맞는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라 그래요. 어떤 민주정적인 나라에서는 민주정에 따른 그 어떤 법이 있고요.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라 그러고... 그러니까 피통치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정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민주정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그 민중들... 이제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이 그 정치체제에서의 강자라고 볼 수가 있고, 참주정에서는 참주가 강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귀족정에서는 귀족들이 이제 강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정치체제를 가만히 보면 다 그것, 그 정치 체제의 지배계급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지배계급이 법을 세웠고,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강자의 이익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입니다.

▲ 소크라테스의 반론 - 정의가 강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

첫 번째로는 음... 그런데 지금 이 주장 자체를 보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냐 하

면, 지배계급의 이득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는 얘기, 두 가지 얘기가 좀 거기에 같이 섞여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정적인 체제에서는 민주정치적인 법이 있고,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그 다음에 참주정적인 체제에서는 참주정적인 어떤 법이 있고,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다. 그러니까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라는 생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자의 이득이 정의라는 것,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두 가지 생각을 묶어주는 건 뭐냐 하면, 강자가 통치자라는 생각이죠. 이 생각이 어떻게 해서 있냐면, 강자가 바로 통치자다. 그리고 이 통치자가 법을, 자기한테 이득이 되도록 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법을 만들었으니까, 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통치자의 이득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통치가 바로 강자니까 강자의 이득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뭐 모순이 있다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 상태에선.

그래도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두 가지 생각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더, 그 두 가지 생각이 있으면 이것이 더 핵심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더 핵심이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갈라질 수 있는 상황을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통치자가 법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트라시마코스 생각에 따르면 통치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된다고 생각해서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통치자가 법을 만들면서 실수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통치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 트라시마코스가 얘기를 해요. 통치자가 실수를 했으면... 법을 만드는데,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통치자가 내가 지금 이런 법을 세우는 것이 나한테 좋겠다고 생각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그 법이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는 법일 수 있단 말이죠. 예컨대 어떤 독재자가 ,예를 들어서 음... 너희, 세금을 수입에 한 95%를 세금으로 내라. 다 나한테 바쳐라. 그 왕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95%를 다 거둬들이면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법을 세웠는데, 95%를 내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거의 필연적으로 봉기를 하게 되고, 통치자도 결국에는 뭐, 죽게 되든지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뭐 95% 세금 내는 법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뭐예요? 멍청해가지고 실제로 이득을 챙기지 못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때 그 법은 통치자들한테 절대로 이득이 되는 법이 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은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통치자가 어떤 법을 만들면서 자기의 이득이 된다고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통치자가 실수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가 일단은 그렇게 갈 줄은 모르고, 뭐 통치자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통치자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라면 통치자가 실수했으니까 그 때 그 법은 통치자의 이득이 되지 않는 법이란 말이죠. 통치자에 이득이 되지 않는 법을 따르는 것이 만약에 정의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강자의 이득이 아니라 다른 것이 정의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는 통치자에게 이득이 안 되죠, 그 통치자가 실수한 경우. 통치자가 실수한 경우에 이걸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통치자가 세운 법이 통치자에게 이득이 안 되는 경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법을 세웠는데, 실수를 했으면 그 법은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다루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이때 법은 통치자에게 이득이 안 되는 그런 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그 경우, 적어도 그 경우에 있어서는 강자의 이득이 정의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정의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반론에 대한 두 가지 대답 - 폴레마르코스와 클레이토콘의 견해 차이

여기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할 수 있어요. 강자의 이득이 정의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대답을 하는 경우하고...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서로 양립 불가능한 상황을 소크라테스가 이제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그 경우에 이쪽을 더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와 이쪽을 더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따라서 그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쪽을 더 중심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 실제로 강자의 이득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치자가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을 했고... 정의라는 건 그럼 뭐냐? 통치자가, 이 때 통치자는 강자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강자의 실질적인 이득이 아니라 강자가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바, 그것이 바로 정의가 된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방식으로 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클레이토콘입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 미리 좀 이 내용들을 읽어 오셔야지, 안 읽어 오시면... 중간에 클레이토콘이 얘기했다, 막 이러는데 그게 무슨 얘긴지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맥락, 모순이 있다고 얘기하고 나서, 클레이토콘이 잠깐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그때 폴레마르코스하고 클레이토콘이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요. 폴레마르코스가 아, 진짜 모순이 있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깐 클레이토콘은 모순이 없다고 해요. 왜 모순이 없냐? 강자의 이득이라고 아까 이야기한 것이, 사실 강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강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강자가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원래 그렇게 얘기한 건데 말을 좀, 그게 복잡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트라시마코스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클레이토콘이 얘기를 해요.

트라시마코스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것 중에서 이쪽에 중심을 두는 것이 클레이토콘이면... 그 다음에 폴레마르코스하고 클레이토콘이 옥신각신을 좀 합니다. 그래서 트라시마코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뭐 맞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때 가서 소크라테스가 아이고, 그건 상관없고, 중요한 건 트라시마코스tm,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는 이쪽을 따르지 않고 이쪽을 따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나면 트라시마코스는 도대체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강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내가 얘기하는 강자는 실수를 안 저지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떤 강자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실수를 저지르는 그 맥락에서는 강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자다, 멍청한 행동을 했으니까. 진정한 강자는 실수를 저지르

지 않는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강자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트라시마코스는 가는데요.

▲ 클레이토콘의 정의 -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대적인 것

일단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클레이토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 되는 것이냐 하면, 이게 완전한, 어떤 정의에 대한 관습주의가 됩니다.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나라든간에 그 나라에서 법으로 세운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정의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관습주의 혹은 규약주의. 이것에 따르면 어떻게 되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의 어떤 정의라는 것, 그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각각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지배계급이 이것이 옳다, 라고 생각해서 세워놓은 것, 그게 바로 정의로운 것이고, 그것은 나라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회는 바로 여러 종류의 정치체제들을 경험한 사회들이에요. 민주정도 경험했고, 뭐 참주정, 귀족정,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나라들 보면 법이 조금씩 다르다. 그런데 그게 뭐가 되었든 간에, 그냥 그때 그 지배계급이 그냥 좋다고 생각해서 세운 것, 그게 바로 법이고 그게 바로 정의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는 게 무조건 정의라는 어떤 규약주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클레이토콘의 입장이구요. 규약주의는 바로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대주의적인 정의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떠한 어떠한 상태가 정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회에서는 이 사회의 법이 정의고 저 사회에서는 저 사회의 법이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트라시마코스는 강자의, 그러니까 사실 강자의 이득이 정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딱 떠올리는 생각은 이런 어떤 종류의 상대주의적이고 규약주의적인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정의가 강자의 이득이라는 생각, 이건 그 기원전 한 5세기, 4세기, 뭐 이때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의가 강자의 이득이다. 실제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정의라는 허울로 만들어놓은 것이 일상적인 정의다, 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 트라시마코스가 제시하는 통치자

하지만 트라시마코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단순히 규약주의, 관습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를, 실수하지 않는 통치자를 상정을 해요. 현실적인 통치자들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누구나 다 실수도 하고 실제로 나라의 정권을 잡은 애들이 언제나 이런저런 법들을 만들 때, 그 이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절대로 자기의 이득에 손해가 되지 않는 법들만 만든다, 뭐 그러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인 통치자들은 실제로 실수를 다 하겠지만, 트라시마코스는 그 뭐, 현실적으로는 실수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강자는 실수를 하지 않는 자다.

그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이제 어떤 병을 고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병을 고치라고 만든 의사가 나서가지고 이런저런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고쳤어요. 그러나 그 때 병을 제대로 못 고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죠. 그 사람은 적어도 그 한에 있어서, 병을 못 고쳤다는 한에 있어서는 의사가, 엄밀한 의미에서 의사가 아니다, 라고 트라시마코스는 얘기해요. 의사는 병 고치는 사람인데, 만일 그 사람이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보통, 이제 일상적인 의미에서 저 사람이 의사라고 부를 수 있지만, 적어도 실수한 그 맥락에 있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의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의사라는 것은 원래 병 고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의사, 실수할 때는 의사로서 실수한 게 아니라 뭐, 그 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인간, 자연인으로서 실수를 한 것이고, 그 사람이 의사로서 엄밀한 의미의 의사로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바로 실수 없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 엄밀한 의미에서의 강자는 트라시마코스가 생각하기에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바로 그런 상태의 사람을 상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법을 세웠을 때, 만약에 강자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법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그럼 그 사람은 통치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말하자면 적어도 그 맥락에 있어서는 말이죠. 어떤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종류의 법을 세웠을 경우에, 그 맥락에 있어서만 진짜 통치자 진짜 강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입니다.

◆ 3교시 정의와 부정의

▲ 소크라테스가 제시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

그 주장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또 반론을 하죠. 소크라테스가 어떤 식으로 반론을 하나 하면, 만약에 진짜 그렇게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를 상정을 하게 되면, 중간에 말을 바꾸지 말고 엄밀한 의미의 통치자의 경우에... 엄밀한 의미의 통치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현실적인 통치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면, 현실적인 통치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중간에 말 바꾸지 말자, 라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어느 쪽으로 이야기할래? 라고 이야기하니깐, 트라시마코스가 엄밀한 의미의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소크라테스가 엄밀한 의미의 통치자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엄밀한 의미의 통치자는 과연 자기의 이득을 챙길까, 피통치자의 이득을 챙길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현실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엄밀한 의미의 통치자로 얘기가 넘어갔던 말이에요. 엄밀한 의미의 통치자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과연 자기의 이득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피통치자... 그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펴는 논증들이 약간 복잡합니다만... 예컨대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물론 의사가 환자를 고치면서 자기 이득도 챙겨요. 돈도 받고,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수입이 많죠. 수입이 많기 때문에 다들 의사가 되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인 의사들은 자기 수입도 챙기고, 뭐 이러는데, 자기 이득을 덜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의 의사, 의사를 의사인 측면에서만 그 사람을 고찰해보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의사로서의 작업이라는 것은 환자를 고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의 이득을 추구한다. 어떤 종류의 기술이든지 간에 그 기술을 엄밀한 의미의 기술로 생각하게 되면, 그 기술은 그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엄밀한 의미의 기술은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의 이득을 추구한다는 거죠.

▲ 소크라테스의 정의 - 피통치자의 이득이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통치자를, 엄밀한 의미의 통치자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통치술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테고요. 그 사람이 헌신적인 일을 하는 것을 볼게 아니라, 그 사람이 통치자로서 통치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때 통치술이라는 것은 바로 그 통치되는 사람들의 이득을 챙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통치술이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라는 것은 그 피치자의 이득을 챙겨주는 것이다, 왜? 모든 종류의 기술이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의술은 환자의 이득을 챙겨주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항해술 같은 경우에는 배탄 사람의 이득을 챙겨주는 것이 그런 기술이구...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말이에요. 어떤 종류의 기술이든지 간에 대상의 이득을 추구한다. 통치술이 적용되는 대상은 피통치자들이다. 그러니까 통치술은 피통치자의 이득을 그 추구하는 기술이고, 엄밀한 의미의 통치자라는 것은 통치술을, 실수하지 않는 통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

로 고찰했을 때, 그 사람은 당연히 피통치자의 이득을 추구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엄밀한 의미의 통치자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이득을 챙기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의 통치자는 당연히 피통치자의 이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류의 엄밀한 통치자가 법을 세워서 했다면, 그 법은 강자라고 하는 통치자의 법이 아니라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피통치자의 이득을 추구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엄밀한 통치자가 하는 일일 테고,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이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의라는 것은 피통치자의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 트라시마코스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와는 반대가 된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되요.

▲ 트라시마코스의 반론 - 정의는 남에게 이득이 되고 자기에겐 해가 되는 것

아직,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를 거의 끝내 포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데,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하면, 트라시마코스는, 네가 지금 세상을 헛살아가지고... 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재미있는데요. 우리 책으로는 343a에 93쪽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논의를 여기까지 하게 되어서 올바른 것의 정의가...” 여기서 올바른 것은 제가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는 여기서는 데피니션(definition)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데피니션, 규정이 정반대의 것으로 뒤바뀌어버렸음”이 모두에게 명백해졌을 때, 트라시마코스는 대답하는 대신에 질문을 했다. 소크라테스 선생 선생께서는 보모가 있기는 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모가 있는 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코를 흘리고 있는 선생을 보모가 무심히 볼 뿐 코를 닦아주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코흘리개여가지고 양도 목자도 못 알아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 소크라테스가 헛소리, 말하자면 세상 물정모르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다, 라는 이야기에요. 왜 세상 물정 모르는 헛소리냐? 트라시마코스가 양치기 이야기를 합니다. 양치기가 양을 키울 때, 그러면 양치기가 양이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줄 아냐, 양 키워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양치기가 하고 있는 건데, 잡아먹거나 털을 해가지고 쓰거나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것도 모르니까 네가 정의라는 것이 남한테 좋은 것이고, 부정의한 것이 자기한테 좋은 것, 그것을 네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한 강자, 정의는 강자의 이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 가서 정의는 그 기준에 주어진 어떤 법들을 각각의 나라에서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의라는 것. 이 두 가지 규정들에 덧붙여서 이번에는 정의는 남에게 이득이 되는 것, 그리고 자기에겐 해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부정의는 자기에겐 이득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남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논변

이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것은, 그 이전까지는 정의는 어떻다, 라는 이야기만 했고 부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맥락에서 처음으로 부정의가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하게 되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런저런 주장이 논박이 되니까, 소크라테스가 질문하는 것들 대답하다가는 말려들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이야기를 길게 해요. 트라시마코스가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세상 물정 몰라서 그딴 헛소리 하는 건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이득 되는 거고, 부정의라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다. 양치기 봐라, 양치기가 ... 말하자면 통치자에 해당되는 거죠. 양들을 키우는 것이 양들한테 이득이 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이득 되라고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정의가 자기한테 과연 이득이 되냐 하면, 이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한 행동했다가 어떻게 되요? 잡혀가지고 감옥가면 절대로 이득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의가 원래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건데, 물론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부정의가 해를 주는 것일 수 있는데...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부정의하고서 안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정의는 남한테 이득이 되고, 자기한테는 해가 되는 건데, 뭐 부정의하다 보면 나중에 잡혀가지고 이제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부정을 안 하는 건데요. 진짜 그 힘센 애는 부정을 저지르고서 걸리지 않거나, 걸리면 오히려 걸린 사람을 죽여 버리고, 뭐 이런 사람, 말하자면 참주와 같은 사람이 부정의의 화신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정의가 진짜 이득이 되는 것이다. 보통 약자의 경우에는, 힘없는 애들은 부정을 해도 걸려가지고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죠. 원래 부정은 이득이 되는 것이 맞는데, 부정의가 진짜 이득이 되려면 강한 사람이어야지 된다. 강한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부정한 행동을 딱 하고서 그 다음에 혹시 걸리면, 일단 안 걸리게 잘하고 혹시 걸리면 말로 잘 빠져나가는 것, 이것이 절대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빠져나간다던지, 말로 잘 안 될 것 같으면 부정의하다고 비난하는 애, 너 이리 와, 해서 죽여 버린다던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로 잘하는 거 같은 것, 말하자면 그 당시 소피스트들이 가르쳤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고소를 당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어요. 트라시마코스도 말하자면 소피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강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구요. 강자가 될 경우에는 정의로운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남한테 좋은 일을 왜하냐, 내가 힘이 약할 때는 남한테 좋은 일도 하고, 남한테 안 좋은 일을 했다가는 잡혀서 죽든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진짜 뛰어난 사람은 부정을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 반박은 좀 복잡해요. 그 반박은 좀 복잡해서 어떤 방식으로 반박하는지 자세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곤란할 거 같군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국가』 읽게 되는 10권까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각 부분들 부분들 마다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면서 넘어가면 우리가 얼마 못해요. 얼마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 중요하다 생각되는 얘기들만 짚으면서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혹시 중간 중간에 약간 의문 남는 점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트라시마코스의 견해, 부정의 = 아레테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뭐냐 하면, 부정의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크라테스가 뭔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하면서...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정의가 아레테(arete), 부정의가 카키아(kakia). 말하자면 이게 카키아(kakia)라는 말인데요, 악덕. 덕 혹은 훌륭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탁월함. 이 악덕은 나쁨... 이제 소크라테스가 정의가 아레테고 부정의가 악덕 아니었어? 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는 뭐 소리야, 내가 지금 부정의가 진짜 좋은 거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내가 왜 부정의가 카키아라고 했냐, 나는 부정의가 아레테라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의가 아레테면 정의는 카키아가 되는 거예요. 트라시마코스가 대놓고서 정의가 악덕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못해요. 트라시마코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정의가 아레테, 덕, 훌륭함이고, 정의는 고상한 순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순진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멍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고상해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멍청한 것이고, 부정의한 것이 진짜 뛰어난 것이다. 이게 말하자면 트라시마코스가 하는 가장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래요. 애초에 정의가 강자의 이득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 보통 사람들은 통치자들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통치자들이 아닐 경우예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지금 이거 정의롭다고 하려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은 너한테 좋은 일 아니라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강자 이야기를 끌어들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정의 이런 이야기할 때 괜히 이득 된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거기에서 그려지는 생각이죠.

트라시마코스가 생각하기에 부정의가 좋은 것이예요. 부정의가 좋다는 것이 뭐냐,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죠. 아레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은 사실 그리스 사고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나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만 이득이 되는 거라면, 진짜 뭐 부정의 이런 식으로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레테는 이득이 되는 것, 덕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은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예요,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상식적인 생각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정의롭다는 것은 꼭 이득이... 왜 이득을 이야기해, 지금,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해야지, 이득 되냐, 안 되냐 따지지 말고 옳은 것을 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것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도덕과 무관한 어떤 좋음하고 그 어떤 옳음하고를 구별해서 생각을 하고요. 좋건 싫건 넌 이걸 해야만 해, 도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비롯한 그리스 사상가들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시다. 좋지 않은 것을 도대체 왜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의무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의무론적인 윤리설이라고 할 수 있는,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약간은 이질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인들은 정말 훌륭한 것, 내가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레테는 나에게,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득이 되는 것. 왜 정의가 이득이 되냐, 물론 부정의한 행동을 하고나서 걸리면 이득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부정의해서 걸리지도 않고 그러면,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이득이 아니냐. 물론 힘없는 애들한테는 정의가 이득일수도 있어요. 괜히 부정의 저질렀다가 걸려서 된통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힘센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정의, 이게 진짜 이득이 되는 것이고. 아레테는 덕일 때 훌륭한 능력이에요. 힘도 없는, 말하자면 요즘말로 짜질이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살다가 그냥 특별히 잘못 안 해서 괜히 무서워가지고... 그것은 아레테하고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법이 무서워서 손을 벌벌 떨어서, 잘못을 못해서, 도둑질하려면, 뭐 훔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 이거 훔쳤다가 누가 보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달달 떨어져 훔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고 아레테를 가졌다는 사람,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이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트라시마코스처럼 진짜 부정의를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 소크라테스의 견해, 정의 = 아레테

결국에 가서는 이 질문에 대해 『국가』 열권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부정의가 아레테가 아니라 정의가 아레테다. 정의가 진짜 이득이 되는 것이다. 1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논변이 설득력이 아주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은 부정의한 사람... 어떤 집단이 있을 경우는 개네가 힘이 있는 어떤 일을, 제대로 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집단에서는 서로 정의롭게 해야지, 그 집단 내에서 자기들끼리 부정의한 행동을 하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레테는, 훌륭한 것은 뭐예요? 힘이 없고 이득이 되려면, 그러니까 뭐, 일들을 잘해야지 되요. 그리고 일을 잘해야지 이득도 생기겠죠. 어떤 집단을 봐라, 지들끼리 부정의한 행동을 하다보면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러니 적어도 부정의가 아레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최소한, 그 집단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도의 정의라도 있어야지만 어떤 일이든지 제대로 할 수 있다. 정의보다 그 어떤 부정의가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정의, 부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술의 한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고, 그 기술을 안 가진 사람이 오히려 그 한도를 넘어서려고 그런다. 이것도 이야기가 복잡한대요. 뭐 의사가 있으면, 똑같이 다른 잘하는 의사가 있으면 원래 하던 대로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돌팔이가 괜히 이렇게 안하던 기술 써서 잘 하려고 하다가 망치고 그런다, 기술 못 가진 사람이 더 일도 잘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하고 부정의한 사람을 보면, 정의로운 사람은 더 가지려고 안 하고, 부정의한 사람이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기술을 가진 사람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비슷하고, 기술을 안 가진 사람하고 부정의한 사람이 비슷하고, 뭐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의로운 사람이 이제 기술을 가진 사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아레테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도 있고...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트라시마코스는, 일단은 그 논박에 당한 것처럼 포기를 해요 아까 거의 포기직전까지 갔다가 포기를 했는데, 그러고서 1권이 끝나요. 1권이 끝나는데, 2권에 가서 글라우콘하고 아

데이만토스가 아직 얘기 안 끝났다고 그러면서 바로 이 문제를 다시 끌고 들어가게 되요.

▲ 정의가 아레테인가, 부정의가 아레테인가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마지막에 논변 자체가 아주 좀 불충분한 점도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다음 시간에 글라우콘이 제기하는 문제를 보면서,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가,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 사이의 논변에서 밀바탕에 놓인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글라우콘의 문제제기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 밀바탕에 놓여있는 생각은 과연 정의가 아레테냐, 부정의가 아레테냐, 그것이 이제 될 테고요. 그것을 판가름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중심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레테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레테들은 뭔가 통일성이 있다. 이 아레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 아레테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잘 있기 어렵다. 그 밀바탕에 놓여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중요한 아레테 네 가지가 지혜와 절제, 용기, 정의죠. 그런데 트라시마코스에게 따르면 어떻게 되나 하면, 지혜와 용기와 절제에다가 부정의가 아레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게 용기 있는 사람이 부정의할 것이기 때문에, 부정의. 아까 얘기하기를 아레테로서 부정의는 못난 부정의가 아니예요. 뛰어나가지고, 막 머리좋아가지고 계획도 잘 짜서 걸리지 않게, 계획도 잘 짜고, 대담하게 걸렸을 때 사람들 죽여 버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부정의할 때 부정의가 아레테가 된다는 그 생각에는, 아레테들이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트라시마코스도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대담하게 되는 것은 뭐나 하면, 지혜롭고 용기 있고, 이런 사람이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히려 정의롭다, 라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소크라테스의 구체적인 대답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테고요.

다음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의 반론에 대해서 말할 텐데요. 그것은 2권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2권 딱 앞부분만 읽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읽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그때 수업이 나갈 부분 읽을 생각을 하시면 수업 진도하고 제가 강의계획서 세워놓은 것하고 딱 맞지가 않아요. 한 5권부터 7권 부분은 거의 건너뛰고서 8권으로 넘어가고 3권 같은 데는 건너뛰고. 여러분이 어차피 『국가』를 읽으시기로 했으니까 자세하게 읽는 것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어느 맥락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 하고, 뭐가 이렇게 된다, 얘기가, 스토리 전개가 어떤 식으로 된다, 라는 건 좀 알 수 있도록 미리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